KiRi 리 포 트
포커스

최근 가구 특성별 보험료 지출 변화의 특징

이태열 선임연구위원

요 약

○ 보험산업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, 코로나 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성장 기조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

○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가계의 보험료 지출의 경우 소득 대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산업 기준의 보험료와 유사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음

○ 보험산업 전체 보험료나 전체 가구 보험료 지출 추이와는 다르게 가구 특성별 보험료 지출은 그 특성에 따라 상호 상반된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

- 소득 수준별로 살펴본 결과, 저소득 계층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보험료가 소득과 소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승하고, 중산층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특징이 나타남
- 가구주 연령별로 보험료 비중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, 젊은 층에서 소득 및 소비지출 대비 보험료 비중이 모두 감소하는 특징을 보임
- 주거 형태별로 보험료 비중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, 일반적으로 주거 안정성이 낮을수록 소득이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보험료 비중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○ 소득이나 소비지출에서 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계층과 젊은 계층에서 주로 감소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

- 이러한 현상은 향후 보험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

○ 보험산업은 취약해진 성장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 특성별로 차별화된 상품개발 및 채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

- 가구 특성별로 보험료 지출 변화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, 시장을 세분화하여 제공하는 상품이나 채널 전략을 달리하는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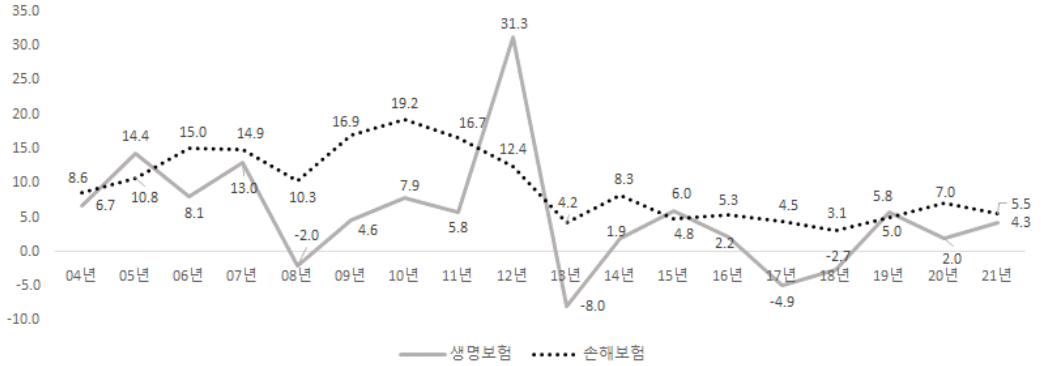
1.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성장 추이

○ 보험산업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,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성장 기조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(〈그림 1〉 참조)

-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6년 이후 경상 성장률이 5%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으나,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2017년, 2018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[1)]
-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두 자릿수 고성장을 지속하다가 2013년 이후에는 한 자릿수 성장률로 둔화되었으나, 코로나19 이후에도 유사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
- 코로나19 이후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보험종목별 변화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으나, 소비자의 특성별로 나타난 차이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임

〈그림 1〉 우리나라 보험산업 보험료 성장률 추이

(단위: 증가율 %)



주: 1) 생명보험은 수입보험료 기준,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
2) 2013년은 회계연도 변경으로 1~3분기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수치임
3) 2021년 수치는 보험연구원의 추정치임
자료: 보험연구원, 『보험산업 전망과 과제』 각 호를 참조함

○ 본고는 우리나라 가계의 보험료 지출이 코로나19와 더불어 가구 특성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였는지 논의함으로써 보험산업 성장성과 관련한 유용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

- 가계동향조사는 우리나라 가구의 다양한 특성별로 소득과 지출 관련 자료[2)]를 발표하고 있으며, 소비지출 항목 안에 '보험료'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
  -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 항목에서 '보험료'는 '가계의 보험료 지출'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, 종신 등 보장성보험, 실손 등 건강보험, 자동차 등 운송 관련 보험, 노후자금을 위한 연금보험 등을 포함[3)]하고 있음

1) 2012년의 생명보험 고성장은 연금관련 세제개편에 따라 일시납 연금의 수입보험료가 단기적으로 급격히 유입된 결과임
2) 본고는 전국 대상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료를 활용하였음
3)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산업기준 보험료 자료에서 기업이 납부하는 퇴직보험, 손해보험의 일반손해보험 등을 제외한 것과 유사한 개념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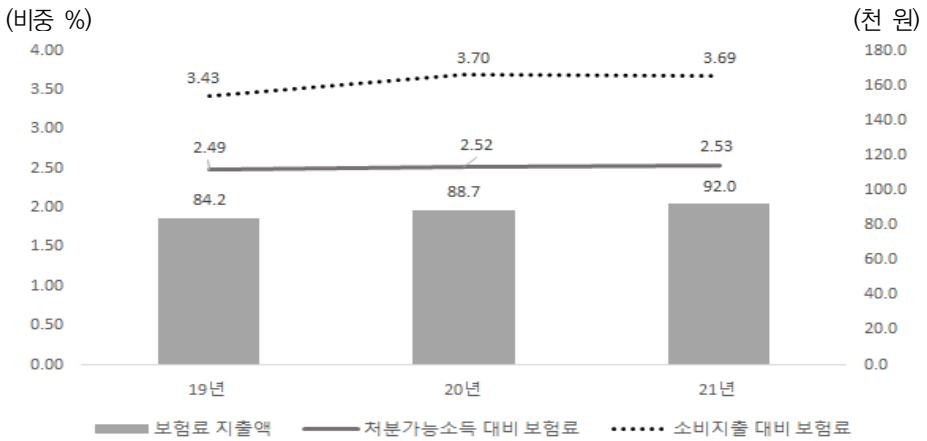
- 가계동향조사 조사 체계 개편으로 연속성이 확보된 가장 최근 기간은 2019~2021년의 3개년에 불과하지만, 코로나19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
- 소득과 소비지출을 모두 조사한 자료는 분기별로 발표되고 있어, 본고는 이를 평균하여 연간 자료[4]로 활용하였음
- 가계동향조사는 가계의 보험료 지출을 파악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본고의 논의 범위는 가계의 보험료 지출에 대한 개략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것으로 제한될 것임

2. 전체 가계의 보험료 지출 추이

○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가계의 보험료 지출은 소득 대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산업 기준의 보험료와 유사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음(〈그림 2〉 참조)

- 우리나라 가계의 월 평균 경상 보험료 지출은 2019년 약 8만 4천 원에서 2020년 8만 9천 원, 2021년에는 9만 2천 원으로 2년간 9.23%(연 평균 4.51%)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음
  - 동 기간 월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7.27%(연 평균 3.57%) 증가한 반면, 소비지출은 1.53%(연 평균 0.76%) 증가하여 소비침체가 심하게 나타남
- 따라서 가계 처분가능소득에서의 보험료 비중은 2021년에는 2.53%를 기록하여 2019년의 2.49% 대비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, 소비지출에서의 비중은 2019년 3.43%에서 2021년 3.69%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
  -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가계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에 비해 소비 위축이 심하게 나타났으나, 보험료에 대한 지출은 그만큼 위축되지 않았기 때문임

〈그림 2〉 가계 보험료 지출 규모와 소득 및 소비에서의 비중



자료: 통계청

4) 분기별로 포함된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분기자료의 단순평균은 실제 연간 평균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○ 본고는 산업 기준 보험료와 전체 가구 기준 보험료 지출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안정적 추이를 보였으나, 이러한 추이가 가구 특성별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파악해보고자 함

- 소득 수준별, 가구주 연령별, 주거형태별로 보험료 지출의 소득 및 소비지출에서의 비중 변화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최근 2021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
- 따라서 본고는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수준별, 가구주 연령별, 주거형태별로 나누어 볼 때 각 가계의 소득 또는 소비 대비 보험료의 비중이 동기간 중 상대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변화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함

3. 가구 특성별 보험료 지출 추이

○ 보험산업 전체 보험료나 전체 가구 보험료 지출 추이와는 다르게 가구 특성별 보험료 지출은 그 특성에 따라 상당히 상반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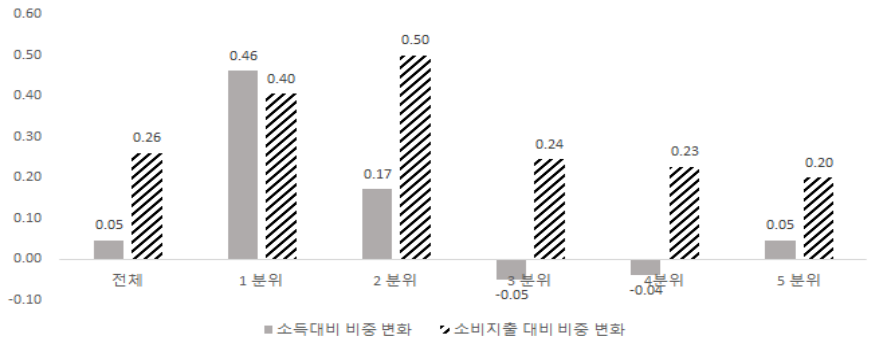
○ 소득 수준별로 살펴본 결과, 저소득 계층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보험료가 소득과 소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승하고, 중산층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특징이 나타남(〈그림 3〉 참조)

- 소득 수준별로 볼 때 소득이 낮은 1, 2분위에서는 전체 가구에 비해 처분가능소득[5]과 소비지출 대비 보험료 비중이 모두 크게 상승하는 특징이 나타남
  - 처분가능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은 1분위의 경우 2019년 2.94%에서 2021년 3.40%로 상승했으며, 2분위의 경우 동기간 2.78%에서 2.95%로 상승함
- 반면, 3, 4분위 등 중산층의 경우 2021년 처분가능소득 대비 보험료의 비중은 모두 2019년 수준에 비해 각각 0.05%p(2.86%→2.81%), 0.04%p(2.75%→2.71%) 하락했음
- 공적보조 등의 영향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중산층에 비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지출은 더욱 크게 증가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
  - 1, 2분위의 경우 2019년 대비 2021년 처분가능소득은 각각 15.70%, 9.88% 증가한 반면, 같은 기간 보험료 지출은 각각 33.88%, 16.67%나 증가하였음
  - 3, 4분위의 경우 2019년 대비 2021년 처분가능소득은 각각 7.15%, 6.60% 증가한 반면, 같은 기간 보험료 지출은 각각 5.30%, 5.11% 증가하는데 그쳤음

5) 본고에서 사용하는 '소득'은 처분가능소득으로 소득에서 조세, 사회보험, 이자상환 등 강제되어진 지출을 제외한 이른바 가처분소득의 개념을 가지고 있음

〈그림 3〉 소득수준별 가계의 보험료 비중 변화(2019~2021년)

(단위: % p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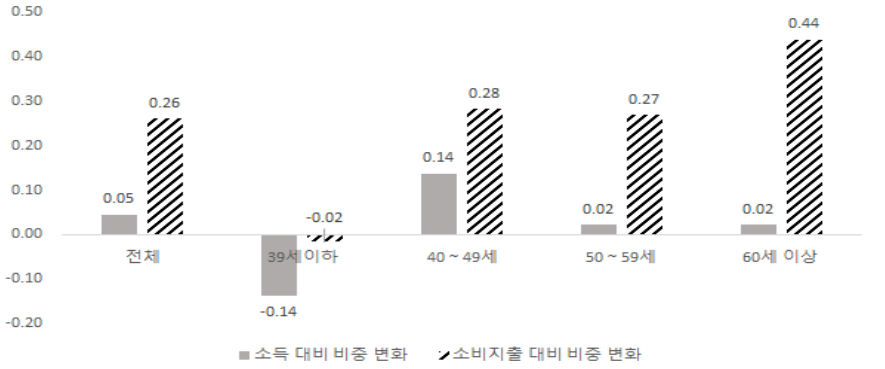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

○ 가구주 연령별로 보험료 비중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, 젊은 층에서 소득 및 소비지출 대비 보험료 비중이 모두 감소하는 특징을 보임(〈그림 4〉 참조)

- 가구주 연령별로 볼 때 대부분의 가계에서 소득과 소비지출 대비 보험료의 비중이 상승하였으나,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인 가계의 경우 소득과 소비지출 대비 보험료 비중이 모두 하락하는 특징을 보임
  -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인 가계의 경우 2021년 처분가능소득과 소비지출 대비 보험료의 비중이 2019년 대비 각각 0.14%p 0.02%p 하락하였음
- 가구주 연령 39세 이하 가구는 2021년 보험료 지출 금액에 있어서도 2019년 대비 감소한 유일한 계층으로 나타남
  - 2021년 보험료 지출액의 경우, 가구주 연령 39세 이하 가계에서는 2019년 대비 1.06% 감소했으나 40대에서는 8.45%, 50대에서는 9.04%, 60대 이상 가구에서는 23.99% 증가하는 대비를 보임
  - 처분가능소득 대비 보험료의 비중(2021년 기준)도 39세 이하 가계는 1.91%에 불과해 40대 2.74%, 50대 2.86%, 60대 2.50%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

〈그림 4〉 가구주 연령별 가계의 보험료 비중 변화(2019~2021년)

(단위: %p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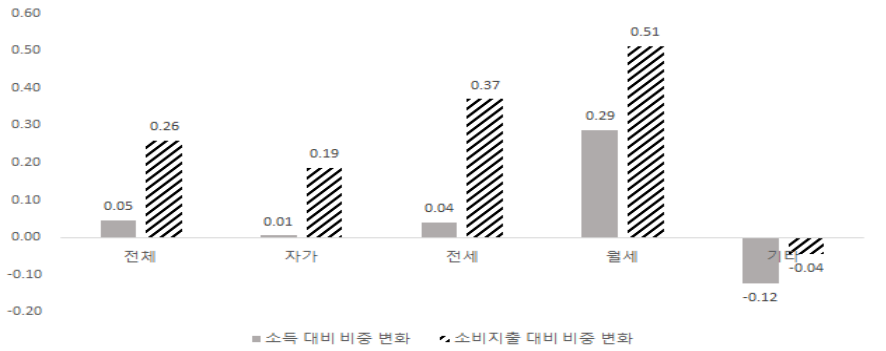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

○ 주거 형태별로 보험료 비중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, 일반적으로 주거 안정성이 낮을수록 소득이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보험료 비중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(〈그림 5〉 참조)

- 주거 형태별로 볼 때 자가의 경우 2021년 처분가능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은 2019년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전세의 경우 동기간 0.04%p, 월세의 경우 0.29%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
  - 2021년 소비지출 대비 보험료 비중도 자가의 경우 2019년 대비 0.19%p 상승하여 전체 평균을 밑돌았으나, 전세는 동기간 0.37%p, 월세는 0.51%p 상승하였음
- 일반적으로 거주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되고 있는 월세, 전세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안정정인 자가 거주 가계에 비해 소득이나 소비지출대비 보험료의 비중이 더 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
  - 월세, 전세, 자가 거주 가계의 보험료 지출액 증가율(2019~2021년)의 경우 각각 22.32%, 5.00%, 8.54%로 나타나 월세 거주자의 보험료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

〈그림 5〉 거주 형태별 가계의 보험료 비중 변화(2019~2021년)

(단위: %p)



주: 기타의 경우 자가, 전월세 등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무상주택, 사택 등을 포함함
자료: 통계청

4. 시사점

○ 소득이나 소비지출에서 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계층과 젊은 계층에서 주로 감소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

- 전체 가구의 경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차분가능소득에서의 보험료 지출 비중은 큰 변화없이 안정적인 추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, 가구 특성별로는 안정된 추이를 보이기보다 상호 큰 차이를 보이면서 변화하였음
- 특히,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계층과 젊은 층의 보험료 지출이 둔화되고 있는 현상은 향후 보험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
- 경제적 여건이 어려울수록 자동차 보험 등 의무성 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갱신 보험료의 인상이 보험료 지출의

높은 증가율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음

- 반면,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가계에서는 변액, 종신, 개인연금, 장기저축성 등 선택적인 성격의 보험에 대한 지출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보험료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을 수도 있음

○ **보험산업은 취약해진 성장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 특성별로 차별화된 상품개발 및 채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**

- 가구 특성별로 보험료 지출변화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, 시장을 세분화하여 제공하는 상품이나 채널 전략을 달리하는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임
- 젊은 계층과 중산층 등에 특화된 보장 수요를 파악하고, 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상품과 채널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
  - 특히, 젊은 계층의 보험료 비중 저하는 미래 보험산업의 성장 기반을 취약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, IT 활용 등 새로운 고객 접근 전략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  - 또한,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대인채널 등 고부가 채널의 효율성 제고도 중산층 이상 계층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